

예수님의 비유(210908)

■ 제 9 강 은혜로운 주인의 비유(마 20:1-16)

1. 전후 문맥: 처음과 나중의 역전현상

1.1. 재물이 많은 청년과 제자들(20:16-30)

1.1.1.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킴 → “네가 온전해 지려면”

1.1.2. 네 ()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! → 근심하며 돌아감

1.1.3.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림 → 풍성한 보상(19:29)

1.1.4.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됨;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됨(19:30)

1.2. 은혜로운 주인의 비유(20:1-16) +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(20:17-19)

1.3. 천국에서 높은 자(20:20-28):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()이 됨(20:27)

2. 포도원 주인의 선택: 필요 이상의 고용

2.1. “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”(20:1)

2.1.1. 품꾼의 노동 시간: 새벽 6 시~오후 6 시까지

2.1.2. 하루 품삯: 한 ()

2.2. 모두 () 번에 걸친 고용

2.2.1. 이른 아침(새벽 6 시) → 12 시간 노동

2.2.2. 제삼, 육, 구, 십일시(09:00; 12:00; 15:00; 17:00) → 노동 시간의 차이

2.3. 필요 이상의 품꾼을 구함

2.3.1.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→ 주인의 선택 자체가 은혜

2.3.2. 제 11 시까지 선택 받지 못한 사람들(20:7)

A. 장애? 병들? 나이들?

B. 일을 구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하루를 굶게 됨

C. 하루 종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, 서 있음 → 미안한 마음과 끼니에 대한 염려?

3. 포도원 주인의 결산: 모두에게 똑 같은 은혜

3.1. 나중에 온 일꾼부터 시작하여 임금을 지불

3.1.1.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지급 → 품삯 받는 손을 부끄럽지 않게함

3.1.2. 많이 일한 자들의 기대, 실망, () (20:12)

3.1.3. 여전히 ()에 속한 태도: 일한 대로 받음(비교, 열등, 우월, 판단, 몰인정, 인색)

3.2. 주인의 변론

3.2.1. 각자는 계약한 대로 임금을 받음(20:13)

3.2.2.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권리(20:14) → 일한 샅이 아니라,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

3.2.3. 주인의 선의에 대한 품꾼의 악의(20:15) → 선택 자체가 은혜

4. 비유의 요점: 은혜에 ()할 줄 아는가?

4.1. 다양한 제안들

- 4.1.1. 하나님의 주권: 많이 주고, 적게 주고? → 한 데나리온은 주게 되어 있음
- 4.1.2. 은혜의 구원 → 새벽에 고용된 품꾼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받음
- 4.1.3. 하나님의 자비 → 비유의 결론 부분은 왜 존재하는가?

4.2. () 강조의 법칙

- 4.2.1. 은혜를 베푸는 주인에 대한 원망 → 탕자의 형과 같은 태도
- 4.2.2.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우리의 성정에 위배
- 4.2.3. 천국에서는 누가 먼저 된 자인가(20:16)? →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

5. 결론: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?

5.1.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

- 5.1.1. 비장한 각오로 억지로 하는 결단이 아님
- 5.1.2. 천국의 참된 ()를 발견한 자연스러운 결과(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)

5.2.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

- 5.2.1. 그 많은 품꾼을 고용할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?
- 5.2.2.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 → 품삯을 위한 주인의 ()

5.3. ()이 되어 섬기는 사람